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0월 18일 (제81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대나무 속 비우듯..

계영배라는 잔이 있다. ‘가득참을 경계하는 잔’이란 뜻이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잔으로, 잔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잔에 술을 7할 정도 따르면 전혀 새지 않다가 술을 7할 이상 채우면 술잔 옆에 있는 구멍으로 술이 모두 빠져 나가게 만들어진 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후기 도공 우명옥이 계영배를 만들었다. 그는 당시 설백자기를 만들어 명성을 얻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후에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계영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 이 술잔을 지니고 다니며 자신을 경계했다고 한다.

욕심! 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3할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던 7할마저 다 잃는 경우를 본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는 사람이 있다. 이는 몸 안에 기생충이 살아서 그렇다. 욕심이란 기생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늘 배가 고프고 허기진다. 그래서 이 욕심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나를 죽이고 만다. 과신, 과욕, 과속, 과로, 과음, 과적, 과식……. 다 욕심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왜냐하면 욕심은 마귀에게서 날기 때문이다(요8:44).

대나무를 보자. 대나무가 곧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속을 비웠기 때문이다. 속은 비우나 당찬 마디를 맺기 때문에 하늘 높이 치솟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가장 큰 그릇은 빈 그릇이다. 욕심, 곧 소유욕을 버리고 성취욕을 가질 때 큰 사람이 된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심은 바로 자신을 비웠기 때문 아니겠는가(빌2:6~8).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갈5:24~26).

계영배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되자.

자식 많은 어미, 병나는 것 보았는가?

지난 10월 12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예수중심 직분자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및 경기일원에서 모인 교회의 중추적인 직분자들은 총회장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격려에 분골쇄신을 다짐했다.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보면 입에 달고 사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플 시간도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체구도 자그마하신 어머니가 7남매를 거두고, 집안을 살피다보면 너무 바빠서 어린 제가 볼 때도 정말 아플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곱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해보십시오. 요즘 자식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셨을까요? 책임

다. 책임이 없기 때문이지요.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해서 영적 자식을 낳아보면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전도한 사람 때문에 행동과 말에 주의하게 됩니다.

저는 전도에 있어 필요한 것이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응력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

에 상이 있다는 마음으로 적응하면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그곳에 적응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처럼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온도에 따라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응은 하지만 근본 하나님의 사람임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건지고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전도하다보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적응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 인물 요셉이나 간디의 비폭력운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중심 직분자 세미나 (2015. 10. 12.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

감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곧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식들을 책임지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영적 자녀를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일이 없는 것은 영적 자녀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에 대를 이를 자녀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요즘에는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장성하면 영적 자식을 낳아야 마땅한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

다. 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9:20~23).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적응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IQ(감성지수)나 EQ(지능지수)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AQ(역경지수)가 뛰어난 것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역경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이겨내고 적응했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받을 때 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식 잘 기르면 나중에 효도를 받습니다. 영적 자식 잘 기르면 그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세미나는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넣는 절묘한 시점, 곧 서울 교회가 새로 꾸며져 입성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세미나여서 그 의미가 깊다. 다시 한 번 예수중심교단에 부흥의 불길이 치솟으리라 믿는다.

묘수신

jesus7857@gmail.com

추계산상집회

10월 26일(월) ~ 29일(목) 예루살렘기도원

호텔예약: 10월 20일(화)10시 정각, www.jcc.tv

문의: 061-392-0633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7)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이 말씀은 신앙의 근간이며,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3).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누가 낳았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아들딸이야 내가 낳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하나님이 낳으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아버지 혼자 낳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함께 낳았듯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일5:1).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8:14)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에

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17:24~25).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가 어떠한 것입니까? 감히 누가 이 권세에 맞서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만사가 되는 게 없이 살고 있

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 우리 가

법사예 잘 되고 강건한 것일진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차마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병에서 고침 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친 부모인지 의심하지 않듯, 하나님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없으면 당신의 삶에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버지께 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육의 부모에게 하듯 똑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도 동일하시지요. 육의 부모는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마7:1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6:9), 이것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기도의 출발입니다. “아빠, 돈 주세요.”, “아빠, 옷 사 주세요.” 라고 육의 부모에게 하듯,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합니까? 하

나

님 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제 아들들은 지금 서른이 넘는 나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맡겨놓은 듯이 당당히 제게 청구하고 요구합니다. 돈이 필요해도, 문제가 생겨도 제게 해결해 달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16:23)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옵니까? 그것 역시 아버지이기애 그러신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결혼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마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할 겁니다.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건 안 돼.” 라고도 하시고 “조금 기다려.” 라고도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두고 가난하게 사는 건 궁상을 떠는 겁니다. 어느 부모에게 결혼

한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오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부모에게 아무 소리하지 않고 셋방에서 지리리 궁상을 떨며 고생하고 있는데, 작은딸은 남편, 애들 끌고 친정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누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딸이 효녀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달려든 작은 딸이 옳은 겁니다. 왜요? 부모에게 가장 불효는 아픈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힘

신앙회복의 출발점은 신분회복에서 비롯된다

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두고도 그렇게 사는 것은 더욱 불효지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천륜(天倫)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천륜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늘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는 백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오냐’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배터리가 있는 마이크를 가진 자와 배터리 없는 마이크를 가진 자의 차이이며, 돈이 든 지갑을 가진 자와 그저 지갑만 가진 자의 차이이며, 총알이 든 총을 가진 자와 빈총을 든 자의 차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터리 없는 마이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행2:38).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8:15~16).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의 호적을 떼어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아울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녀만 되어도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재벌가의 자녀들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지요. 그러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영원한 것

우리 가족은 현재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 큰 딸은 미국 뉴욕에, 그리고 작은 딸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연휴에다 각자 휴가를 추가로 활용하여 유럽에서 합류 후 함께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가 뉴욕으로 가 큰 딸과 함께 크로아티아를 경유하여 파리에 도착, 작은 딸을 만나 온 가족이 함께 스페인을 여행한 후 파리로 다시 돌아와 각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크고 작은 폭포가 내려오면서 바위에 부서져 수없이 많은 물줄기를 만들면서 마치 형형색색의 비단을 드리워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면서 천국의 모습이 아마도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으로, 13세기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도시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성곽과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만 남아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독창적인 천체상을 가진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세계 어느 성당보다도 특이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가우디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경배를 40년 이상 이곳에 쏟아 부었고, 말년의 15년간은

이곳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세비야는 기원전 5세기 로마 제국부터 수많은 권력자에 의해 지배를 받은 도시로서, 콜럼부스가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의 대항해시대에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부가 집결되었던 곳입니다. 그 영화로웠던 시절의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 3번째 규모의 웅장함과 이슬람 모스크를 개조하여 건축한 특이한 장식과 건물구조를 가진 성당으로 콜럼부스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경이롭고 위대한 창조물과 그에 대한 찬양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하여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절실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이 있지만, 성당 내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성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부나 권력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관섭 장로

성령으로 정결한 마음을 갖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위안부 소녀상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고 미국에도 있다. 최근에 이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청년봉사단체의 회장이 기부금을 횡령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생인 봉사단체 회장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봉사활동 후기를 적어서 올렸다. 꾸준히 봉사활동 후기를 올리기에 좋은 일을 하는 청년으로 인식되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돈을 기부했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한다며 모금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그러나 봉사한다는 이 청년이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개된 기부금 내역을 보면 자신의 밥값까지 아껴가며 몇 천 원씩 보낸 소액부터 수백만 원이 넘는 큰돈까지 소중한 선의에 찬 마음들이 알알이 적혀

있었다. 청년은 횡령사실을 인정했고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 친구한테 술도 한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등,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써버렸다고 하였다. 이 청년이 특별히 악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평범한 하나의 사람에게도 선과 악은 공존한다. 인간인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결해질 수는 없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정결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어야 우리의 흠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성령이요, 말씀이다. 선악이 공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성령을 가까이하며, 성경 말씀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처럼 회개를, 감사를, 그리고 선을 택하자.

김성일
cre8tor@naver.com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찧눌림이 되어
함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짜궁하지 말라
짜궁할찌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7~18)**

::성경에세이::

역경지수(AQ)를 높여라

아들아!

너도 이제 어른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지? 사는 게 그리 녹록치 않다는 말이지. 바다에 늘 크고 작은 파도가 몰려오듯 인생이란 길에는 역경과 환난,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늘 산재해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봐라. 그들이라고 역경이 피해가고 환난이 다른 데로 돌아갔겠니? 천만에! 오히려 그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더욱 많은 역경과 큰 환난이 있었을 게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란단다.

예전에는 IQ(지능지수)가 좋은 사람이 출세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단다. IQ보다는 EQ(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잘사는 시대를 넘어, 이제 AQ(역경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는 말이 돌고 있지. AQ란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느냐’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야. 성취하는 자와 성취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AQ의 차이라는 거지.

꿈의 사람 요셉을 보라. 그가 국무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봉변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등,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지.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좌절하거나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오히려 역경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적응했단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것이었지. 그러니 분노가 사그라졌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단다. 그것이 그를 거목으로 만든 요인이 된 거야.

아깝도 그랬지. 형을 피해 야반도주 하다가 시피 한 그가 외삼촌 집에서 노임을 착취당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미끼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그는 그 안에서 부(富)를 일구었단다.

멀리 볼 것 뭐 있니? 아비를 보라. 핍박과 모함으로 점철된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3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남들보다 높은 AQ가 작용한 거란다. 언론에서 아비를 매도할 때도, KGB에 끌려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했던 아비는 역경지수가 남다르다 할 수 있지.

아들아!

역경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날까? 그것은 확실한 목적과 목표에서 나는 거란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AQ를 성취지수라고도 한단다. 아픔이 금의환향할 목적으로 버틴 것이고, 아비도 세계를 복음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역경을 이겨낸 거야.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도 있듯이 역경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는 거란다. 요즘 아이들은 이 역경지수가 낮은 것 같아 걱정이야.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들의 나약함이 문제란다. 베토벤은 청각을 상실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들리지 않기에 더 몰두하여 많은 명작을 남겼고, 조실부모하고 무학과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대기업을 일군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자들을 기억해라. 담쟁이가 벽을 뚫고 뿌리를 박는 것처럼, 삶의 역경을 이겨내야 한단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수 1:9)는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 판에 새기면, 세상은 살아봄직 하단다.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 전 한 광고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 축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이영표가 출연한 나이키사의 광고인데 지난 8월 미국 타임지에서 소개되어 칭찬할 만큼 훌륭한 광고이다. 내용은 이렇다. 각자 자신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린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주저앉기도 한다. 그 때 그곳에서 등장한 이영표 선수는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먹여 주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남들 하던대로 하자’,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선수들은 잠시 한숨을 쉰다. 그 뒤 마지막으로 이영표 선수는 한 마디 더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은 들은 선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종목에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야구선수는 슬라이딩에 성공해 1점을 획득하고, 태클에 걸려 넘어진 축구 선수는 다시 일어나고, 육상선수는 비 오는 날에도 운동을 쉬지 않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공중 턴을 성공하고, 배구선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 내며, 복싱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한다. 그 뒤 그들을 인정하듯 이영표 선수는 씨익 웃는다. 이영표 선수가 한 따끔한 충고는 어린 선수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도 주위에서 사람들의 따끔한 말을 들을 때 기억하자! 주의 사람들의 충고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일 뿐이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코 포기하지 말라) -윈스턴 처칠-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남원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4)



남원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 (2015. 10. 6)

지난 6일 남원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가 있었다. 남원골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기도원에서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고구마를 캐보니 아주 싹했습니다. 기도원의 박 장로가 하는 말이 날이 많이 가물어서 매일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하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꿨더니 싹한 고구마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는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남원교회의 서권능 목사가 이런 마음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기른다면 척박한 땅일지라도 분명히 고구마 줄기에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리듯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대해 성도들을 보살피면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서 목사를 섬기게 될 것이니 이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29기 동기 목사들이 '선한 목자' 찬송을 불렀는데, 선한 목자란 양을 잘 살피고 살을 찌게 하는 목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며, 소외된 자를 찾아 친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기쁨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목회초기 하루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단 위에서 학잠을 자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었으며,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쫓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내일의 안락을 기대하며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쫄면 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란 행동, 글이나 언어로 나타

납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먼저 본이 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에 불이 붙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남원골에는 유명한 춘향이 있습니다. 춘향이는 오직 이몽룡을 사모하여 온갖 것을 유혹하는 변 사또로부터 지조를 지켰습니다. 서 목사가 세상 것들로부터 지조를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모한다면,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사랑해달라는 서권능 목사의 사모의 말처럼, 늘 처음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늘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 남원골을 뒤덮는 서권능 목사와 남원예수중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묘수신

jesus7857@gmail.com

::인터뷰::

깨끗한 거목이 되겠습니다



서권능 목사 부부

입당예배를 드린 남원 예수중심교회 서권능 목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목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어떻게 해서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서 목사: 전도사로 교구에서 사역하다가 목사로 기름부음을 받은 지는 올 1월 16일로 아직 1년이 채 안 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존경했던 노(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신 그 목사님은 제게 늘 따뜻하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커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으며,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주의 종 길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자: 남원교회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입당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도움을 주신 분께도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서 목사: 목사로 부름 받고 총회장님의 말씀 따라 2월 말 남원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온 가족이 남원으로 이사를 했고, 3월 8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원교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부

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과정 가운데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총회장님의 기도와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도착해서부터 3일 만에 사택완공까지 어마어마한 작업을 마쳤고, 이사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쉽게 마쳤으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노회까지 열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조급하지 말고 기도도 우물깊이 파고, 일꾼을 달라고 구하라는 마태복을 9장 37, 3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당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찾아가 재촉하라는 주위 분들도 계셨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이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일기장에 기록된 수많은 도움의 손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하여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서 뿐 아니라 그날 그시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서 목사: 우리 교회로 부임하면서 다짐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의 말을 하자, 절대 부정의 말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리고 "남 원원이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성도 정말 좋아." 라고 뿌듯더니 지금은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요?

서 목사: 목회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지만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원망치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성향 따라 은사는 다양하겠지만 부흥의 조건으로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후회되는 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자: 총회장 목사님께 평소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서 목사: 감사하다는 말뿐이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살 때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집회 때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처음 뵈었고, 시온산(현 예수중심)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인천으로 취업을 나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성장하여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까지의 은혜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산이 나무를 지키지만 장성한 후에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을 지키는 진실하고 깨끗한 거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자: 남원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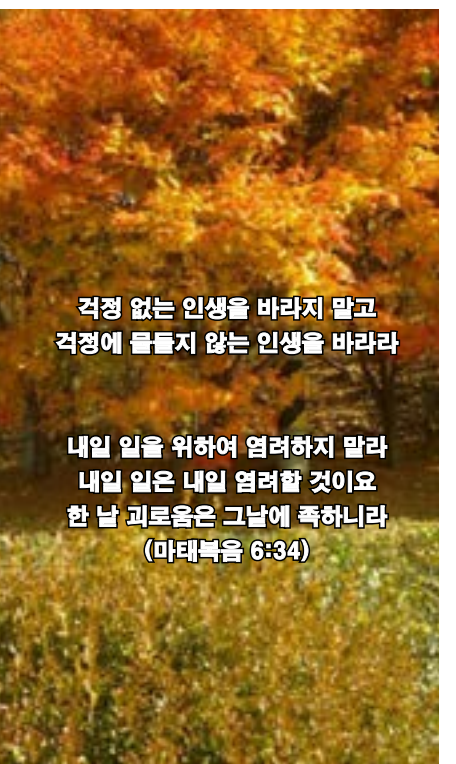
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서 목사: 교회의 비전에 대해 말로써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회의 비전이 곧 제 비전이고 교회의 목표가 곧 제 목표입니다. 부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원 예수중심교회는 '남원을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교회, 서로서로 사랑하는 교회,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창한 말보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 했듯이, 눈에 보이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기에 행동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묘수신

jesus7857@gmail.com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바라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